

합동 전화
로카디파파, 2019 년 2 월 23 일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1. 시작 인사
2. 프란시스코 칸자니와 요셉 아소아드와의 대화
3. 예루살렘: 모두의 도시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도시예루살렘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뉴스가 매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을 넘어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다.
4. 성지: 대화의 역사
안나 마리아, 제시카와 탈랏: 희망의 증거.
5. 예루살렘: "일치와 평화를 위한 국제 센터"
평화는 수 천가지 방법으로 건설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만남의 장소, 영성, 공부, 대화와 양성의 장소가 필요하다. 예루살렘 포콜라레들의 프로젝트..
6. 프란시스코 칸자니와 요셉 아소아드와의 대화 (계속)
7. 파나마와의 연결: 후속 청년대회
8. 동 아프리카와의 연결: 함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해
2019 년 1 월. (케냐) 나이로비 근교의 포콜라레 소도시에 7 개국의 100 명이상의 젊은이들이 리더십 양성 과정을 위해 만남.
9. 협치: 오늘 날의 도시에서의 공동 책임감
2050 년 전에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될 것. 이 현상의 도전과 기회가 카스텔간돌포 마리아폴리 센터에서 1 월 17 일부터 20 일까지 가진 국제 대회의 중점이었다.
10. 마리아 보체(엠마우스) 와 예수스 모란과의 대화
11. 끼아라 루빅: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1982 년 12 월 2 일 로카디파파 - 끼아라 루빅의 1983 년 2 월 생활말씀 설명 녹화. (cf. Lc 5,5).
12. 결론

1. 시작 인사

(음악)

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세계 여행을 해야 할 텐데, 세상이 커서 좀 길 거예요.....

엘리 폴로나리: 스위스와 연결되었나요? 팔미라?

팔미라 프리체라: 네 엘리, 차오 끼아라!

엘리: 부에노스 아이레스?

목소리: 끼아라와 함께 해요!

끼아라: 마치 여기 있는 듯하네요!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하여, 내가 한 영성적인 생각을 주면 모두가 함께 살지요. 그리고 늘 나와 함께 있는 엘리가 매월 모두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 돼요. (음악)

이제 새로운 것이 있는데, 내 곁에 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코도 있어요. 마르코 아퀴니는 [...] 젊은이들을 대표해 주기 바라요. (박수)

엘리: 끼아라 바꿔주겠어요!

끼아라: 여보세요, 차오!

함께: 차오 끼아라!

(박수)

타마라: 차오, 환영합니다! 끼아라와 함께 이 합동 전화에 기여했던 두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엘리 폴로나리는 처음부터 함께했고, 마르코 아퀴니도 함께 했지요. 두 사람 다 최근에 우리를 떠났는데, 두 분께 우리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시작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타마라 파스토렐리이고 이태리 사람인데, 지금 이 강당에 있는 프란체스코와 결혼했고, 아름다운 지방 토스카나의 아레초에 살아요. 합동전화를 듣는 모든 친구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저는 로피아노 소도시의 통신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 곳 식구들에게도 인사 드립니다! (박수)

그럼 시작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의 느낌, 제안, 사진들을 이 주소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¹

2. 프란시스코 칸자니와 요셉 아소아드와의 대화

타마라: 오늘 저녁에는 제 곁에 프란시스코 칸자니와 요셉 아소아드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교회 일치와 유대교-그리스도교 대화의 전문가이고, 요셉은, 의사이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살았지요?

두 분다, 전 세계 운동의 모든 현실들을 대표하는 약 70 명의 임원들로 이루어진 포콜라레 총본부 평의회에 속해있습니다. 많은 평의원들이 여기 계신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바 학교 멤버들도 환영합니다. (박수)

프란시스코와 요셉은 총본부 평의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의 한 주간의 피정과 순례를 마치고 방금 돌아 오셨지요. 이 합동전화의 대부분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 다룰 것인데, 프란시스코, 이 여행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따끈한 인상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¹ L'indirizzo email, la pagina Facebook e il numero di telefono si vedono sullo schermo.

프란시스코 칸자니: 정말 따끈한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 그 장소들을 함께 걷지 않기는 어렵지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말은 작업으로, 평의원 전체가 ‘탄돌’ 교회 일치 연구소에서 3일간 사업회의 재산의 공유, 모든 이를 위한 경제 등, 올 해 우리가 살기로 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일하고 또 일했기 때문입니다.

헤수스 모란과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파나마에 갔었기 때문에 거기 도착했을 때, 젊은이들의 현실이 마음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하루 전체를 젊은이들에게 할애했는데, 사업회 안에서 젊은이들과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라는 현실을 깊이 살펴 본 것이 평의원들 모두에게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 년 총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성지 지역의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와의 만남과 루터교회의 유난 주교, 크로니시 랍비, 피에르바티스타 핏짜발라 주교와의 만남 등 몇 몇 의미 있는 만남으로, 이는 그 곳의 솔직한 삶, 도전, 기쁨, 희망에 대한 강하고 진실된 개요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작업과 예수님의 발자취와 발걸음을 따른 순례로, 성지들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성지 보다는 성지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걷는, 즉 예수님과 함께 한 순례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평의회가 하나의 여행을 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전 사업회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고, 다른 모든 이에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예루살렘: 모두의 도시

타마라: 그럼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딘 소우다 (여):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편견을 갖도록 교육 받았습니다. (.....)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평화를 원하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스테파니아 스피커: 많은 민족들이 수세기에 걸쳐 건설한 예루살렘 천년의 돌인, 백색의 “예루살렘 돌”이 우리의 걸음을 동반해 준다. 이 거룩한 도시는 멀리서 익숙하게 느끼던 것보다 더 복잡해 보여, 훨씬 더 신비로운 것 같다.

예루살렘은 쉬운 도시가 아니다. 유혹은 뉴스가 거의 매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연관된 테러와 폭력, 거룩한 성지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된 저항 등 만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단지 이것 뿐일까?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이 존재할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치열하게 희망을 갈망하는 도시가 더 있을까?

론 크로니시 랍비 (남): 예루살렘은 불행히도 매우 분열된 도시입니다. 동예루살렘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인이고 서예루살렘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의 30%가 아랍-팔레스타인인, 이슬람교 및 기독교인이며, 약 70%가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긴장의 상황이 조성될 때, 특히 폭력상황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도 양측 모두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사리 누시베 (남):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어깨나 머리에 일정한 체중을 계속 가하는 것과 같은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시의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일상생활의 경제적, 재정적, 법적 문제들입니다. (.....)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만, 반면에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은 나를 화나게합니다.

스테파니아 스피커: 예루살렘에는 관광객과 순례자 무리 속에서 구시가지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날들이 있다. 1 평방 킬로미터 미만의 거리에서 유대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지역으로,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 지역으로 바뀐다.

이슬람 신자들에게 성스러운 금요일 저녁이 저물어갈 무렵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막 시작된다. 이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는 이 거룩한 도시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하물며 그 도시 자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기록한다. 이 도시는 전세계가 서로 비교하고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곳이다.

핏자 발라 주교 (남): 나는 30 년간의 예루살렘의 경험 후에 갖게 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일부러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자주 함께 머물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 벌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도시의 벌일 뿐 아니라, 이 도시의 성소이기도 합니다.

사리 누시베 (남): 이것은 상대방 편으로 가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기 위해 건너야 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시기로 돌아가서 말한다면, 당신이 이 여행을 단행하면, 매우 자주 당신과 상대방 사이가, 양쪽 모두가 훨씬 평화롭고 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 내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님 유합 (남):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분이 머무실 장소로 선택하셨을 때는, 그 곳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에게 그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 현존하는 각 종교가 지닌 역사적 장소의 지위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

우리는 예루살렘을 단지 종교만이 아닌. 믿음이 있는 곳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너무 많은 종교가 있지만, 믿음은 거의 없습니다.

스테파니아 스피커: 오늘날 예루살렘은 거의 90 만명이 거주하는, 성지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구시가지 밖에서는 고대의 신성함과 근대성이 혼합되어 있다.

론 크로니쉬 랍비 (남):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미래 도시이자, 일상 생활의 도시이며, 희망의 도시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우리는 천상 예루살렘과 지상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때때로 지상의 예루살렘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천상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두가지 다 입니다.

(음악)

4. 성지: 대화의 역사

타마라: 요셉은 몇 년간 예루살렘, 이 유일한 도시에서 사셨는데, 거기서 사는 것이 어땠나요?

요셉 아소아드: 나는 '90 년대 초에 그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가는 것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옛 지인들을 만나고, 같은 길을 걸었는데, 많은 것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옛 시가지는 그대로이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길이 새로웠고, 없던 터널들도 생겼더군요. 아무튼 내게는 돌들이 말하는 그 곳에 다시 간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길을 걸을 때면 참으로 그 곳에 하나의 초자연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면서 내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많은 장소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거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방문하게 했었지만, 이 번에 모두 함께 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일치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곳에 되돌아 오면서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타마라: 성지에 남아 있으면서 참으로 복합적인 이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함께 봅시다.

(음악 – 하이파)

안나 마리아 카람, 고등 학교 교장- 하이파(in arabo): 저는 아랍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본성인 모든 사람에게 개방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이파의 한 사립학교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는 현재 50%의 그리스도교 학생들, 50%의 이슬람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 저의 교육 목표중의 하나는 대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회에서 이를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에게는 “너희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는 황금률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인 다른 학교의 책임자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새세대가 대화에 더 개방적이고 또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교육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 - 후레이디스)

탈랏 샤프로비, 중학교 교장- 후레이디스 (남) (in arabo): 2001 년에 제가 안나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또 포콜라레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같은 책상에 앉아 있던 동료였는데, 제게는 그녀의 평온함과 문제들을 대면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이 대화는 서로를 알아 가도록 격려 했었습니다.

(음악 - 기바 쉬무울)

제시카 삭스, 번역가 - 기바 쉬무울 (in inglese): 저는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기 기바 쉬무울은 거의 모두가 유대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교에 충실한 신자들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또한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편안하지만, 가난한 삶입니다. (음악)

저는 성경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평화는 유대인으로서 살고 기도하는 바와 우리가 행하고 열망하는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정통 유대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늘 살아온 것이기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관습으로, 우리는 매 토요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음악과 환경), 우리는 집에서 가족들과 방문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회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음악)

안나 마리아 (여) (in arabo): 2009 년, 가자지구에서 지역 충돌이 일어났을 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저녁 기도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음악)

탈랏 (남) (in arabo):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 유대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보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유일한 이슬람 신자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랍인 마을의 한 이슬람 신자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신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모임에서 우리는 대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단지 기도했고, 그 것으로 끝났습니다. (박수)

질적인 도약은 많은 종교인들을 만났던 이탈리아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이상한 일은 내 가까이 살았던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 곳에서는 다른 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만 할까? 제시카가 먼저 말을 걸어 올까? 제시카는 나를 어떻게 볼까? 아랍인, 팔레스타인인? 아니면 유대인으로?

제시카 (여) (in inglese): 나는 그에게 함께 식사 할 수 있을지 물었고, 탈랏은 즉시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서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막고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한 가지 도전 거리가 있다고 말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고, 어떤 것이 나의 도전거리인지 그에게 말하고,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탈랏 (남) (in arabo): 저는 제시카와의 만남이 하나의 새로운 이해로 저를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저희 이슬람신자들은 열심한 유대교인들은 아랍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들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제시카 (여) (in inglese): 우리는 탈랏과 노하의 집을 방문했는데, 저의 남편도 함께 갔어요. 그들이 사는 프레이디스에는 처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갈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치는 않지만, 내게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 다른 동맹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나 마리아 (여) (in arabo): 많은 경우에 상황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훈련한다면 사랑은 전염성이 있으므로 무언가는 분명히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환경)

제시카 (여) (in inglese): 우리에게는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복잡합니다. (음악과 환경)

언젠가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불꽃을 유지하는 대화로 평화가 따뜻하게 살아있도록 유지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할 지 알 것입니다. (음악)

안나 마리아 (여) (in arabo): 만약 내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항상 평화롭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 곳 하이파에서는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쉬우므로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거나, TV 를 보면 즉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음악)

탈랏 (남) (in arabo): 아마도 하느님께서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끼아라는 처녀였을 때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었나요? 이 곳 프레이디스까지, 전세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희망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평화를 볼 수 없을지라도, 평화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음악과 박수)

6. 예루살렘: "일치와 평화를 위한 국제 센터 "

타마라: 평화는 탁상에 앉아 얘기를 나누거나, 비디오에서 사람들이 한 것처럼 문을 열면서 등 수천 가지 방법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데,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습니다.

(음악)

나딘 소우다, 생물학과 학생- 예루살렘 (in inglese): 저는 예루살렘에 아랍인과 이스라엘인이 만나는 지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머물고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

(스테파니아) 스피커: 나딘은 26 살이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에 평화의 미래를 꿈꾸는데, 그 미래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딘 (in inglese): 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분열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유대인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친구를 사귀고 함께 식당에 가서 우리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

(스테파니아) 스피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 있다. 전통에 의하면, 이 고대 로마의 계단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최후의 만찬 후에 겿세마니 동산으로 가시어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 (음악)

끼아라 루빅은 1956 년에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하였고, 그 때 이 계단 위에 멈추어서 바로 이곳에 대화와 일치를 위한 센터가 태어나기를 원했다. (음악)

'80 년대에는 이미 "계단"으로 알려진 곳에 가까운 땅을 살 기회가 있었고, 이 곳에 센터를 건설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일치와 평화를 위한 센터"는 끼아라로부터 정확한 임무를 받았으니, 영성, 연구, 대화와 양성을 위한 장소여야 한다.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 신념 및 출신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만남으로 이끄는 그런 장소말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와 행사를 주최하기에 적합한 많은 기능을 가진 구조를 보여 준다. 총 1,180 평방 미터의 2 개층으로 이루어 질 것인데, 강당은 지하에 있고, 계단식 지붕에서는 경관을 바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은, 회의 및 상호교류를 위해 설계된 약 8,000 평방미터의 녹지를 낀 야외 공간이다.

테레스 소우다, 포콜라레 - 예루살렘 (in ebraico): 저는 이 평화와 일치를 위한 이 센터가, 포콜라레 운동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바로 이 분열과 갈등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다른 종교와 민족의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센터로 말입니다. (환경)

피에르바티스타 핏짜발라 주교, 포콜라레가 이 새로운 센터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새롭고, 다른, 차이가 나는 무언가가 되기를 기대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를 신뢰와 대화, 친교예로 양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센터가 단지 여기 오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이 지역민을 위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리 누세이베, 철학 교수, 알 쿠드 대학- 예루살렘 (in inglese): 가교를 건설하는 교육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매워주는 상호이해를 위한 진정한 여행을 새로이 창조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리적 형성과 종교적 이해를 의미합니다. (환경)

론 크로니시 랍비 - 예루살렘 (in inglese): 이 프로젝트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안팎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수 년 동안 이런 장소를 찾아왔는데, 이제 찾았으니, 이 도시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음악과 박수)

5. 프란시스코 칸자니와 요셉 아소아드와의 대화 (계속)

타마라: 방금 여러 분이 본 것은 끼아라의 꿈을 실현시킬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3D 그래픽이므로, 가상에서 실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의 실현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대규모 기금 모금을, 세계적인 재산의 나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일치와 평화 국제 센터"의 약자인 icupj.org 인터넷 주소에 가시면, International Center for Unity and Peace - Jerusalem 이 있는데.

그 페이지에 들어 가면 센터와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 오른 쪽에 "우리와 함께 건설합시다"라는 뜻인 "Build with us"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첫 번째 기부 가능성은 이 계좌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우리에게 많은 다른 기여 방법과 이 프로젝트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제안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평의원 전체가 센터가 건설될 대지를 보러 갔고 그 곳에 이스라엘 성지 공동체도 있었지요? 거기에서 엠마우스가 시작의 표시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위를 했는데 즉 메달을 땅에 묻었는데, 이 센터가 예루살렘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이 센터는 참으로 환상적인 것인데, 우선은 우리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90 년대에 거기 있을 때도 이미 '80 년부터 바랐던 것이었지만, 관료적인 그리고 고고학적 이유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시작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 센터는 500 평방 미터 만 있어도 행복해 할 예루살렘에서 8000 평방 미터 이상을 확보했는데, 구 시가지 성벽에서 300 미터 떨어진 곳에 갖게 된 것은 분명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센터는 유다 지역과 아랍지역 중간에 있는데, 이 것은 아랍인들도 유대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느끼지 않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고, 각자가 그 곳에 가면서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느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유대인과 무슬림 그리고 그리스도 교인들의 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예루살렘의 이 전략적인 장소를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대화 면에서는 내가 중동인 이기 때문에, 대화는 하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임을, 필수적인 것으로 대화 없이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없다면 세상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더 느낍니다. 그러니 함께 모아 줄 수 있는 센터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 합니다.

이미 이 대화는 존재하는데, 우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를 아는 무슬림들이 있고, 성지 밖에도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길에서 대화 할 수는 없으니, 한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비디오에서 지금 본 센터는 아주 아름답고, 아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곳이었는데,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하지만, 형제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러므로 도심에 이런 아늑한 장소를 갖는 것은 형제애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중동에서 또한 세상에서 평화와 형제애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겠습니다.

타마라: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우리에게 이 센터가 지닌 가치는 무엇입니까?

프란시스코: 나는 이 영상이 잘 말해 주었다고 믿는데, 모든 도전들이 거기에 도달하고 또한 거기서 출발하므로 이는 한 '소 우주' 예루살렘인데, 단지 예수님의 부활의 도시이므로 결정적인 희망의 도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 종교간의 만남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부자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에 국한된 것일지라도, 국민들에게 도달해야 할 일치의 증거와 모두에게 도달해야 할 평화의 커다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요셉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만나고 함께 지낼 평신도들, 백성들의 커다란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는 우리들에게도 아름답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타마라: 감사합니다!

6. 파나마와의 연결: 후속 청년대회

타마라: 이제, 바로 지난 1월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세계 청년 대회를 가졌던 파나마로 옮겨 갑시다.

(음악)

프란체스코 교황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함께 만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고 그래서 만남의 문화의 스승과 장인들이 되었습니다.

(음악)

타마라: 다시 프란시스코 차례인데, 우루과이 인이지요.....

프란시스코: 예 우루과이 인입니다.

타마라: 그리고 파나마의 청년대회에 참석했지요.

프란시스코: 파나마에 있었습니다..

타마라: 프란시스코에게는 희망의 대륙이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이 세계 청년대회가 무슨 의미였다고 생각하나요?

프란시스코: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대륙에 대한, 그의 고통, 도전, 희망들에 대한 전체 교회의, 교황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 깊었던 순간은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함께 했던 금요일의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 외의 제 15 처에 마약 밀거래에서 인신 매매, 극빈과 소외 등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확정된 한 백성, 라틴 아메리카 백성이 하나의 얼굴, 마리아의 얼굴과 연결되어 있었으니, 하루 종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마리아의 구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젊은이들과의 직접적이고, 강하고, 예리한 한 순간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품에 희망을 간직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세계 청년 대회 내내 사랑이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복잡한 현실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황님과 젊은이들과의 만남, 젊은이들의 하느님과의 만남이었는데 나는 관상의 순간들이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젊은이가 아니지만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던 우리 모두가 드높은 순간에 하느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타마라: 이제, 프란시스코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모토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였던 제 34 차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하고 건설했던 더스틴과 줄라이가 연결되어 있으니, 파나마의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차오 줄라이, 더스틴!

Tutti: 차오!

타마라: 차오! 줄라이,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함께 했던 세계 청년 대회 후에 여러분은 "국경 없는 사랑"이라고 부른 한 순간을 조직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다루었고. 누가 참가 했나요?

줄라이: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쿠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및 파나마에서 온 15 세에서 30 세 사이의 300 명 이상의 젊은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목적은 세계 청년 대회에서 교황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첫 날 있었던 예수스 모란의 담화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안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깨닫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깨닫게 도와 주었습니다.

더스틴: 중앙 아메리카의 포콜라레 젊은이들인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마리아를 제안 했는데, 마리아가 세계 청년 대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칸자니는 다른 연사들과 함께, 하느님께 드린 "예" 덕분에 마리아를 우리 여행의 동반자이자 삶의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봉사에 대한 성소가, 다양한 성소의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강조되었습니다.

3 일간 자신들의 노래, 경험담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 우리를 동반해 준 쟈 베르데의 현존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타마라: 줄라이, 개인적으로는 어땠나요?

줄라이: 워! 나의 모든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 날들을 지낸 후 제게 남은 것은 마리아의 하느님께 드린 “네”로 매일 하느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청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를 믿어줍니다.

타마라: 그리고 이 “네”를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준비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스틴: 예, 우리는 젠페스트에서 시작한 “일치된 세계를 위한 통로” 프로그램이 이 사랑의 성소를 실행 할 프로그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바를 위한 첫 모금을 했고, 베네수엘라를 위한 국제적 나눔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마라: 더스틴, 줄라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스틴: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차오!

타마라: 차오! (박수) 여러분에게 우리의 박수가 도달했나요?

우리도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상황을 주시하면서, 특별히 너무 오랫동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 빨리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7. 동 아프리카와의 연결: 함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해

타마라: 이제 페이지를 바꿔, 케냐의 나이로비로 가 봅시다. 거기서 1 월에 아프리카 각국의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류의 모임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코스의 타이틀은 “Together for a New Africa, 함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해” 였습니다.

(노래)

멜키올 엔사이비이마나 (in inglese): “함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해” 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로피아노의 소피아 대학원 대학에 다닐 때, 아프리카의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대륙의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는 소피아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다른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콩고 민주 공화국, 남 수단 등 7 개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양성 과정을 조직했어요. 107 명의 젊은이들이 튜터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대륙이 처한 첫 번째 도전은 분단이었기에 그룹의 구성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 참석자들의 국가간의 관계를 보면 부룬디와 르완다 국민들은 아예 서로 말을 섞지않는가 하면, 콩고와 르완다는 서로를 원수로 여겨요. 그런데 이런 참석자들이 함께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리더가 되는 법으로, 대화를 이루어 가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을 가교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3 년 동안 지속될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노래)

아만딘 이라코즈 (여) (in francese): 나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가치들을 실천에 옮겨 내 몫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우분투”의 가치, 경청의 가치,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 등, 지혜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새로운 행동지침을 마련해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멜키올 엔사이비마나 (in inglese): 우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편으론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봐요. (노래와 박수)

타마라: 에스텔 완부이는 제도적 의사 소통의 전문가로 일하며, “Together for a new Africa” 에 참여했는데, 그에게 인상을 물어 보았습니다.
(in inglese)

남: 에스터 왜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얘기해 주겠어요?

에스터 함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나는 본래 리더십을 느끼고, 길을 열어 보고 싶어 하고, 가능한한 내가 속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남: 이제 하나의 새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계속되나요?

에스터: 여러 나라의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활동을 개발하며, 꿈의 실현을 위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리더십의 정치적 측면에서도 함께 일합니다.

타마라: 에스텔 감사해요! (박수)

8. 협치: 오늘 날의 도시에서의 공동 책임감

타마라: 이제 주제를 바꾸어, 잠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통치가 관리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로 이루어진다면 어떨지 잠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 것이 다음 소식에서 얘기할 스토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올로 발두치: 1903 년에 첫 (강화 모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을 때 세계 인구의 20% 미만이 도시에서 살았다. 2050 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음악)

이 같은 도시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수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도시화를 관리하고 대처해나가야 할까?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음악)

‘협치: 함께 하는 정치.’ 이는 지역 행정관, 도시기획자,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국제 대회 프로젝트로 지난 1 월 17 일부터 21 일까지 로마 근교 카스텔 간돌포에서 열렸다.

젊은 남자 (in italiano): 나는 이탈리아 아르자노에서 왔으며 시의회 의장입니다.

젊은 여자 (in tedesco): 저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왔고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남자 (in ungherese): 저는 야노스 코바리입니다. 헝가리 릭스 지방 정부 소속입니다.

여자 (in portoghese): 저는 저의 시의회 의원 입니다. (음악)

쥘 스피겔, (남) 킹거스하임 시장 - 프랑스 (in francese): 삶의 여러 순간을 살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나, 운동하는 운동장 또 노동하는 일터 등의 장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훈련하도록 주어진 장소는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메워야 할 간격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선거 때에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또 모두가 함께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장장이의 쇠모루와 같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시민의 집”을 세우고 싶었어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말이죠. 시민의 집은 원하는 모든 단체가 참석하여 민주주의 기술을 연마하는 장소예요. 민주주의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음악)

바올로 발두치: 페데리코 레스트레포-포사다는 토목 기사인데 콜롬비아 메데진 시에서 수년간 일한 그에게 지역 개발 계획이 맡겨졌다.

페데리코 레스트레포-포사다 – “시민의 헌신”, 메데진, 콜롬비아 (in spagnolo): 가장 빈곤하고, 폭력적이고 또 가장 소외된 지역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데진이 아닌 이 지역의 안티오키아 공립 대학과 연계하여 4년 동안 작업을하여 대학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른 분야와 기업 또 비정부 기관들과 함께 이 지역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바올로 발두치: 문제가 발생할 때 불평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안나 마리아 파나로토의 경우가 그렇다.

안나 마리아 파나로토 (여): “노-파스 어머니 그룹” 이탈리아 비첸차: 젠 이었던 젊은 시절부터 끼아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내게는 늘 지역문제들에 깊이 관여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비첸차 지방 티비 뉴스: 파스 (pfas)에 의한 오염과 지역 건강검진 결과의 충격적인 자료가 나오면서, 이 오염지역에 살고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올로 발두치: 이 오염지역 젊은이들의 혈액 샘플 검사에서 지하수층에 있는 많은 양의 독극물이 검출 되었다.

안나 마리아 파나로토: 처음에는 한 그룹의 어머니들이 걱정과 분노를 나누기 위해 모였지만, 그 후로는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지금은 천여 명이 모이는데, 환경 단체는 물론 다른 그룹들도 협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대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예요. 그래서 먼저 대화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지역 시장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지방관청과 또 중앙행정부서와 여러 차례 대화를 했어요. 나중엔 유럽의회에까지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지역 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랐고 또 우리에게 발생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였어요.

바올로 발두치: 스마트 도시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이는 기술발전을 통해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려는 도시계획 플랜의 최신 동향을 말한다. 디지털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예상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복합적인 것 같다.

파디 체 하데이 유엔 사무 총장, 디지털 협력 미국 고위급 패널 (남), 미국 -유엔 (in inglese): 우리는 디지털을 통해 더 연결이 되었다고 여기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스마트 도시는 기술적으로만 연결된 도시가 아닌 "살아있는 도시"로 재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각 단계에서, 시스템이 삶의 가치를 포함시킬 것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선서"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아이나, 대기업에서 특정 데이터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나, 새로운 발명품을 꿈꾸는 과학자나, 모두가 공통된 가치를 부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올로 발두치: 우리 편과 다른 편, 좌편과 우편, 양극의 충돌, 아니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위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양면이 존재한다. 우리의 일과나 관계 속에도 또 의사당 내에도 양면성으로 가득하다.

길 정우 (한국어): 제 이름은 길 정우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이었습니다.

박 수현, 한국, 전 국회 의원 (in coreano): 제 이름은 박 수현입니다. 그 당시 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 이었습니다. 국회라는 곳은 싸우지 않는 곳이 아니라 싸우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싸우는 것입니다. 다만 몸싸움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길 정우, 한국, 전 국회의원 (in coreano): 그래서 저희들이 속해 있었던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에서 5년째 '일치를 위한 바른 정치 언어 상'이라는 상을 만든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순화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정치인들의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박 수현, 한국, 전 의원 (in coreano): 서로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논리에 일치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볼 때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일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1 걸음도 아니고 반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일치를 향해서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일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악)

세르조 프레비디, 브라질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in portoghese): 다르다는 것은 우리를 빈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를 전제로합니다. 따라서 대화가 피어난다면 우리 각자는 기여자(공로자)가 됩니다.

루이스 카를로스 하우리, 브라질, 국회의원 (in portoghese): 관용과 이해는 기본입니다. 나는 늘 아주 투쟁적이고 강하고 단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기아라의 생각인 버림받은 예수님을 목상 하면서 반대자나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그날은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짐을 내 마음에서 제거했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에밀 세 쿠다, 아프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신학자 (여) (in spagnolo): 현대 세계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내용이 없는 빈 단어가 되었으며, 현실 도피나 도덕적인 존재 혹은 감성이나 감정 조절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아무튼 영성은 관계입니다. 현대적, 정치적 용어 면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영성은 백성이고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백성이나 도시는 인간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서로서로 연결되어 사는 삶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음악)

레티치아 데 토레,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 협치는 대회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협치는 거대한 아이디어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커다란 유산입니다.

바울로 발두치: 이번 대회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약속"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는 기념비에 새겨둔 문서가 아니라 행동하고 건설하고 네트워크를 구상해가자는 촉구문서이다. 그러므로 협치의 성공 여부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박수)

9. 헤수스 모란 마리아 보체(엠마우스)와 헤수스 모란과의 대화

타마라: 엠마우스, 헤수스, 반갑습니다!

헤수스: 감사합니다.

타마라: 여러분과 함께, 시작으로,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행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헤수스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헤수스: 여러 소식들과 요셉과 프란시스코의 느낌과 설명들로 이미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프란시스코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들이, 돌들도 하느님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있으면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을 상상하며 밤에 야외에서도 기도해 보았습니다.

성지에서는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그 곳에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류와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파급 효과와 함께 이루어 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지의, 예루살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모두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정신적인 막대한 힘이 농축되어 작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 유일한 일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핏자 발라 주교가 우리와 만났을 때 하신 한 생활 양식에 대해, 거기에서 사는 양식에 대해 하신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거기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화를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독특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독특한 경험입니다.

타마라: 엠마우스, 성지 여행이 처음은 아니었지요?

엠마우스: 아니요, 세 번째였습니다.

타마라: 그리고 이번에 특히 엠마우스를 감동 시켰던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엠마우스: 여러 순간 중에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고뇌 성당 방문과 다락방의 두 순간을 기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겻세마니 동산에서 내게 깊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악이 닥쳐오는 것을 보시고, 성부께 기도하셨고, 당신과 함께 기도하도록 부른 사도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성부께 기도하시던 중에 어느 순간 당신의 친구들,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러 가보아야 함을 느껴서 가 보셨을 때, 곧 닥쳐 올 그 끔찍한 순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내게는 그들을 깨우신 것이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사시고, 인간들과 함께 사시기 원하신 것, 당신의 친구들과 무언가를 하시기 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잠들려고 하거나 이미 잠든 것을 보시면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 너희에게 인류의 필요를 만나게 함으로써 너희를 깨우겠다,”라고 하시는 듯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고통 받은 모든 형제 안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내가 오는 것이고, 너희를 부르고, “나를 도와줘, 나와 함께 있어 줘.”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게는 그 것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예외적으로 여겨졌던 다른 순간은 다락방에서의 순간으로, 복음서에서 명시적으로 마리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내게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땅 위에 건설하고자 하셨던 이 가정의 현실을 세상에 계시하신 순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에게는 한 어머니가 필요하므로, 그 순간 거기에 마리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놀란 사도들 가운데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밖에서 군중들은 소리 질렀고, 사도들의 귀에는 자신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박고, 비방했던 군중들이 스승에 대항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군중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어느 순간 사도들은 그들은 압도적인 초자연적인 힘에 사로잡혔는데, 성령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그 군중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포하기 위해 군중 쪽으로 다가 갔는데,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나요? 하느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선포로 인해 즉시 5000 명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5000 명이었는데, 내게는 이들이 보편적 형제애의 시작 그룹으로 여겨졌으며, 마치 그 순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보편적 형제애를 위해 “우트 옴네스”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시키고,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얘기 한다면, “저 모든 이를 하나로”가 실현될 것이라는 아주 새로운 확신과 그 실현을 위해 나도 기여하고 싶은 열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제 끼아라의 생각을 들을 텐데, 끼아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이 소용없게 느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고, 인류의 고통은 너무 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용기를 갖고 다시 시작해라, 너는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인데 모두에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성지가 내게 준 선물이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모두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타마라: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10. 끼아라 루빅: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

타마라: 그러면 끼아라의 말을 듣는 것만 남았는데, 끼아라가 매달 했던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1983 년의 한 “생활 말씀” 입니다.

(음악)

끼아라 루빅: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 앉아 군중을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사실대로 털어 놓으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

고기잡이에 숙련된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를 한 뒤에, 고기를 낚을 가능성이 희박한 대낮에 그물을 치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비웃으며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상황으로,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들이 (...) 거쳐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실상 우리의 믿음은 수천가지 양상으로 시련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심과 노력과 참을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제는 너무나 광대하고 도달하기 불가능하며,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 사회풍조, 동료들, 매스컴 등으로부터 견디어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이는 투쟁해야 할 힘든 시련입니다. (...)

그러나 이 시련을 대면하고 잘 받아들인다면 (...) 예수님의 특출한 말씀들이 진실이며, 그분의 약속은 이행됨을 체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에게 온갖 부(富)를 채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뿐 아니라 이 생에서 백 배의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잡이 기적의 재현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 즉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청하시는 것에 의혹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태도, 활동, 전 생활이 그분의 말씀에 기반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더 견고하고 확실한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이룩할 것이며, 인간적인 모든 요구가 미비된 바로 거기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심을 놀라움과 더불어 관상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남을 볼 것입니다.”²

(박수)

11. 결론

타마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뢰심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끝맺기 전에 한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세르비아에서 만나고 있는 젠들이 인사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동 유럽 전역에서 온 70 명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봅시다.

젠 (여): 세르비아에서 모든 분께 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보라색 지역 전역에서 세르비아의 젠대회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에게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젠들이 여러 언어로 인사 - 박수)

타마라: 우리도 젠들에게 인사합니다. (박수)

그럼 2019년 4월 27일 이태리 시간 12시의 다음 합동전화를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

² Rocca di Papa, 21 dicembre 1982 - dalla registrazione di Chiara Lubich del commento alla Parola di Vita per febbraio 1983 (cf. Lc 5,5).